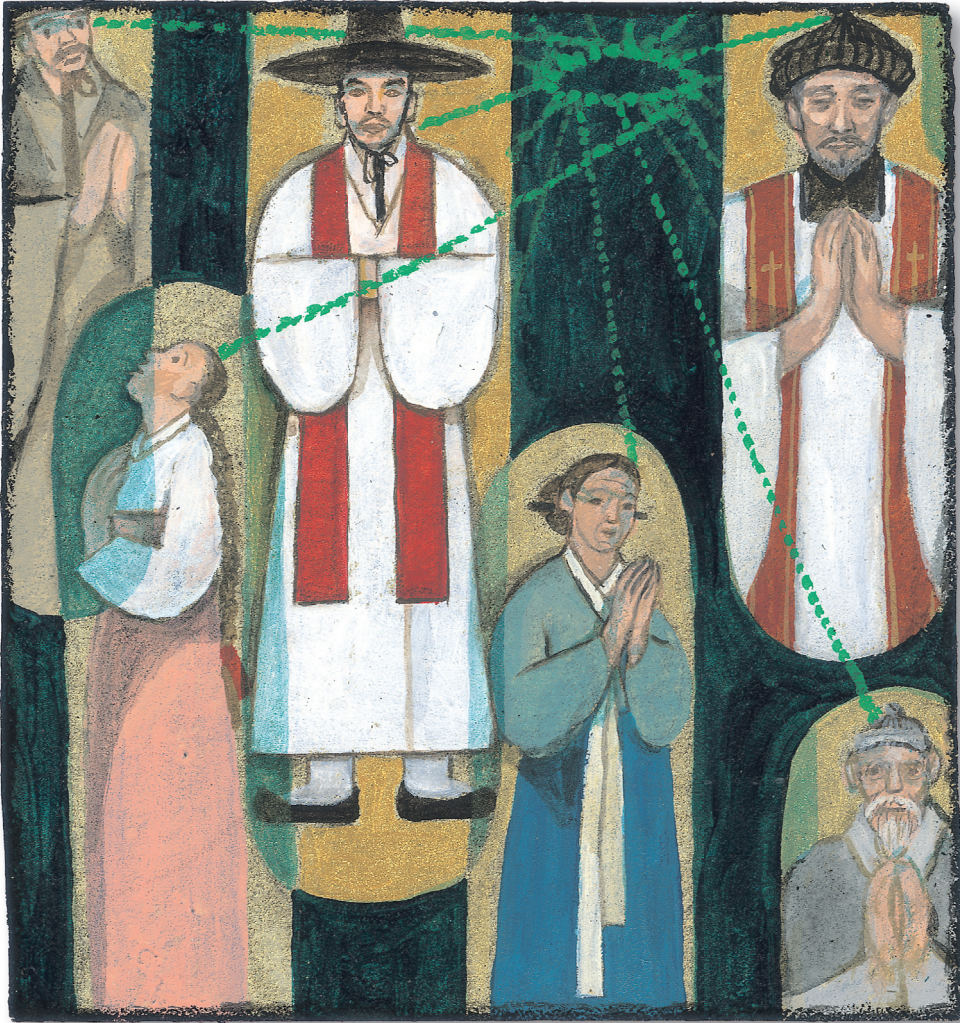


대구 주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 이동 2017. 9. 17.(가해) 제2070호
2017년 교구장 사목교서 | 그리스도의 젊은 사도, 청소년과 청년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http://www.daegu.jubo.or.kr>
T. (053)250-3048~9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루카 9,24).”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세계 역사상 선교사도 없이 스스로 천주교를 받아들인 자랑스런 선조들이십니다. 하느님께 대한 굳은 믿음과 경외심으로 웃으며 칼을 받고 기꺼이 죽음으로 영생의 길을 가신 그분들의 거룩한 삶을 높이 기리나이다.

— 정미연 소화데레사 작

제1독서 지혜 3,1-9 **제2독서** 로마 8,31-39 **복음** 루카 9,23-26.

화답송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알렐루야.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리라.

우리에게 요구되는 순교는 희생이다



최호 요한보스코 신부 | 고아본당 주임

우리는 스스로 순교자의 후손이라 말합니다. 순교자의 후손으로 그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순교자의 후손으로 그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는 ‘순교’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순교’라는 말을 할 때 보통 죽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죽음으로 증거한 신앙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순교자들은 결코 죽음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죽음으로 우리 신앙을 살리셨습니다. 그냥 용감하게 죽음을 맞이한 것만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살리십니다. 어떻게 죽었느냐 하는 문제보다 무엇을 살렸느냐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더 이상 옛날과 같은 순교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럼 순교는 옛날이야기일 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순교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의 순교자들이 죽음으로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을 살리셨듯이, 우리 역시 이 교회와 이 세상을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 가는 것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순교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죽어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느님의 빛이 점점 죽어 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 의지하며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는 요즘입니다. 하느님 자리를 다른 무언가로 대신 채우려고 하는 이때,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점점 사라져 갑니다. 둘째, 사람이 죽어 갑니다. 이익을 위해, 손해를 받지 않기 위해 사람은 어느새 수단이 되어 버립니다. 이제 사람은 죽음에 내몰리

기도 하고, 고통과 무관심 속에 스스로 죽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죽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자연이 죽어 갑니다. 우리는 늘 한결같은 햇살과 적당한 비를 기대하지만 이미 무분별하게, 무절제하게 사용해서 죽어 가고 있는 자연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는 죽어 가는 것 투성입니다. 이렇게 죽음이 힘을 키울 때 그것에 대해 깨어 저항하고 생명을 지켜 내려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순교입니다.

이러한 순교를 실천하기 위해서 예나 지금이나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희생’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져 가는 하느님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오랫동안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좀 부담되고 손해 보더라도, 좀 돌아가는 길이라도 희생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희생이 하나 둘 모여 우리 주위에 죽어 가는 것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순교자들의 자랑스러운 후손입니다. 선조들이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우리에게 물려주었던 그 신앙을 이젠 우리가 생명을 위한 희생을 선택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 당당히 물려줍시다. 이번 한 주간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희생할 수 있는 용기를 결심합시다. **필렝**

제9장 국제공동체 : 하나된 세계, 하나된 인류

박용욱 미카엘 신부 |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23달러에 그쳤습니다. 53년 후 전 이후의 1인당 GDP가 67달러였으니,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상태에서 출발한 셈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이제는 경제 규모 세계 11위권을 차지하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길거리에는 유럽에서도 보기 어려운 고급 승용차들이 줄을 잇고, 사치성 소비재 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구매력을 과시하고 있지요.

그런데 ‘한강의 기적’이라고 일컬었던 이 놀라운 경제 성장의 배경에는 우리 민족의 성실성이나 교육열, 또는 탁월한 재주로만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6.25동란 이후에 해외 원조가 없었다면, 그리고 형제애를 영적, 물질적으로 보여준 세계 교회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경제적 성공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1945년부터 65년까지 한국은 약 130억 달러 상당의 경제 및 군사 원조를 받았는데, 그 대부분이 무상 원조였습니다. 예컨대 유엔한국재건단(UNKRA)은 1950년에 설치되어 53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는데, 구호물자의 조달과 함께 산업, 교통, 통신시설 및 주택, 의료, 교육시설의 재건을 위해 노력했고, 국립의료원을 세워 의사와 의료요원을 양성했습니다. 지금 50대 이상이라면 누구든지 이런 해외 원조의 혜택을 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톨릭 단체들이 보여준 형제애와 애덕의 실천은 우리나라의 교육, 양로, 고아, 의료 등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오스트리아 가톨릭부인회, 독일의 미세레울, 평신도 선교 봉사단체인 국제가톨릭형제회, 옥실리움, 그리스도왕 시녀회 등의 활약은 잊어서는 안될 소중한 나눔의 사례였지요. 오스트리아 가톨릭부인회의 예를 보면, 2차 대전 후의 재건이라는 현지의 어려운 사정 속에서도 사순절 수프 먹기 행사(Fastensuppeessen)를 통해 모은 정성을 우리나라에 보내서, 교육과 의료를 포함한 사회복지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국제적인 도움을 통해 성장한 우리지만, 세계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데는 아쉬운 면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에서야 대외 원조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했지만, 29개 원조국 중에 소득대비 개발 원조 규모는 꼴찌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회교리서』 9장은 그런 우리에게 보편적 형제애가 무엇인지, 또 어떤 실천을 해야할 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점점 세계화되는 사회에서 공동선과 이를 위한 노력은 인류 가족 전체, 곧 민족들과 국가들의 공동체라는 차원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다(베네딕토 16세 교황, 회칙 「진리 안의 사랑」 7항)는 가르침을 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필로**

몸 튼튼, 믿음 튼튼! 대구대교구 가톨릭 선교 게이트볼 동호회

“딱!” “와~”하는 함성소리가 젊은이 못지않은 열정과 건강함을 느끼게 합니다. 노령화 시대, 국민생활체육의 보급이 확산되고 노인들의 복지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가톨릭 신앙인으로서 건강과 신앙을 동시에 챙기는 노인들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건강과 친교를 통해 화합을 도모하며 나아가 선교의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진 “가톨릭 선교 게이트볼 동호회”입니다.

게이트볼은 영어의 ‘문’이라는 뜻의 ‘게이트(gate)’와 ‘공’이라는 뜻의 ‘볼(ball)’이란 두 낱말을 합성한 것으로 중국에서는 ‘문구(門球)’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규칙이 쉽고 육체적으로도 무리가 없어 다양한 연령층이 즐기며, 특히 노년층 사이에서 여가 활용 스포츠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13세기 경 프랑스에서 처음 즐긴 것으로 알려지며, 영국에 보급되어 크로켓으로 발전하였고 2차 세계대전 직후 일본에서 현재의 게이트볼 형태로 만들어져 198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전파되었습니다.

2007년 3월 24일 설립되어 2009년 7월 9일 교구장 인준을 얻은 “가톨릭 선교 게이트볼 동호회”는 이러한 게이트볼 경기를 통해 교우 형제자매님의 건강 증진과 더불어 친교와 화합을 도모하고 비교우 입교를 위한 봉사 및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구시 8개 구군(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및 인접 시군(경산)을 포함하여 9개 지부로 편성되어 총 87명

성부언 가브리엘 | 선교게이트볼동호회 회장

의 회원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매월 둘째 주 화요일 대봉구장(도시철도 3호선 대봉교역)에서 월례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교구 노인 사목을 담당하는 박상용(사도 요한) 신부님께서 담당 사제를 맡고 계십니다. 나날이 회원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비신자였던 세 분의 회원은 얼마 전 세례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 3월에는 교구장기 대회 승인을 얻어 2012년 9월 12일 제1회 교구장기 대회를 시작으로 해마다 많은 분들의 성원과 참여 속에서 지난 2017년 5월 16일 제6회 대회까지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제6회 교구장기 대회에는 장신호(요한 보스코) 보좌주교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으며 각 대리구 3개 선수팀이 참가하여 열띤 경기를 펼쳤는데, 85세 이상 되신 고령의 참가자도 계셔서 푸짐한 상과 함께 성공적인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잔치를 열 수 있게 된 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지극한 열정을 보시고 베풀어주신 하느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은총이자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영광과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직접 오셔서 보면 아시겠지만 게이트볼은 노인에게는 더없이 좋은 운동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를 희망하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회장 (010)5798-0311 



아하~ 그렇구나!

알쏭달쏭 천주교 용어



개별 교회 個別教會 <라> ecclesia particularis <영> particular church

하나인 그리스도 교회의 지역적 구현을 뜻하는 것으로, 개별 교회는 보편 교회의 하급 행정 단위가 아닙니다. 이 개별 교회들 안에서 그리고 이 개별 교회들로서 유일하고 단일한 가톨릭 교회가 성립하며, 모든 개별 교회 안에 각각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 오는 교회가 현존하고 활동하며 성장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개별 교회”라는 용어를 여러 가지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 헌장’에선 교구 또는 여러 교구들의 연합체, ‘동방 교회 교령’에서는 개별적인 자율 예법 교회, ‘주교 교령’에서는 교구와 준교구를 뜻합니다. 개별 교회는 각각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단 하나의 개별 교회만 있더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존립하는 것입니다.

개별 심판 個別審判 <라> iudicium particulare <영> Particular Judgment

사람이 죽자마자 자신의 삶에 대하여 하느님께 받는 심판(『가톨릭 교회 교리서』 1022항 참조)으로 “사심판”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사(私)’와 ‘공(公)’이라는 표현을 잘못 알아들을 수 있으므로 iudicium paticulare는 “개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신교 改新敎 <라> Protestantismus <영> Protestantism

16세기 종교 개혁 시대에 유럽에서 마르틴 루터를 필두로 가톨릭 교회에 대하여 ‘오직 성경, 오직 신앙, 오직 은총’이라는 기본 원리를 주장하며 형성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말합니다. ‘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프로테스탄트”라고도 합니다. “기독교(基督教)”는 그리스도의 한자어 음역인 ‘기리사독(基利斯督)’을 믿는 종교’의 준말로 말뜻으로는 개신교뿐 아니라 가톨릭과 동방 교회를 모두 가리킵니다.

경당 經堂 <라> sacellum, oratorium <영> chapel, oratory

수도원, 병원, 학교 등 어떤 공동체나 또는 그곳에 모이는 신자들의 편익을 위하여 교구 책임자의 허가로 지정된 하느님 경배의 장소를 가리킵니다(교회법 제1223조 참조).

sacellum, oratorium도 일반적으로 다 “성당”이라 하고, “성당(ecclesia)”과 법적 구분이 필요할 때에만 “경당”이라고 합니다.

경신덕 敬神德 <라> virtus religiosa, virtus religionis <영> virtue of religion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덕을 나타내는 말로 흠숭, 기도, 희생, 제사 등 하느님께 합당한 공경의 예배를 드리는 덕(『가톨릭 교회 교리서』 2095항 이하 참조)을 뜻합니다. **필문**

〈발췌_『천주교 용어집』(2017)〉

교구장 동정



- 9. 10(일) _ 월성성당 25주년 감사미사 및 견진성사
- 9. 11(월) ~ 12(화) _ 주교 영성모임
- 9. 14(목) _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스텔라관 축복식

총대리 동정



- 9. 10(일) _ 성산성당 새 성전 봉헌미사
- 9. 11(월) ~ 12(화) _ 주교 영성모임
- 9. 15(금) _ 한국성모의자애수녀원 종신서원



여우목 교우촌 및 이윤일 요한 성인상 축복미사

일자 : 9월 20일 수요일

장소 : 경북 문경 여우목 성지, 교우촌

행사 일정 : 11시 _ 기념미사 및 교우촌 축복식

12시 30분 _ 이윤일 성인상 제막식

교구 도보 성지순례

일시 : 9.23(토) 장소 : 한티순교성지 (13:00 미사 예정)

- A코스 : 가산산성 주차장(진남문)~소나무골목 입구~평산아카데미~한티순교성지(2시간 30분)
- B코스 : 선원사 앞 공영주차장(평산아카데미)~한티순교성지(30분)

문의 : 교구 사목국, 250-3057



답게 살겠습니다 금주의 실천 사항(평신도위원회 제공)

“기회가 되면 가까운 순교성지를 순례하고, 순교자들의 믿음을 되새기겠습니다.”

바라만 보지말고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2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9월 18일(월) 10:30 범어성당	구미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9월 20일(수) 19:00 신평성당
이주사목후원회 월례미사	9월 18일(월) 11:00 계산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9월 21일(목) 10:00 평화성당
포항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9월 18일(월) 11:00 죽도성당	김천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9월 21일(목) 19:00 성의고등학교
한티순교자현양후원회 월례미사	9월 18일(월) 11:00 순례자성당	-	-

성소 | 피정

마리아 영성 피정(성체현시·미사·안수)

일시: 9.20(수) 13:00~16:30
10.18(수) 13:00~16:30

장소: 삼덕성당

지도: 강요셉 신부

문의: 삼덕성당, 422-6691

성소 식별 피정

기간: 9.23(토) 16:00~24(일) 18:00
장소: 툇정포교베네딕도 대구수녀원
대상: 35세 이하 미혼 여성
문의: (010)8519-3431

제주 성이시돌 자연 피정

올레, 미사, 기도, 강의
기간: 9.24~26 / 10.8~10 / 10.17~20
10.25~27 / 11.4~7 / 11.14~17
문의: 성이시돌피정의집, (064)796-9181

제16차 영성의집 무료 치유 대피정

기간: 9.22(금) 22:30~23(토) 16:00
준비물: 세면도구, 필기도구, 미사도구
신청: 부산교구 성령봉사회 영성의집,
(055)382-9465~6

교육 | 모집 | 기타

새빛학교 ABC영어반 신입생 모집

영어 발음과 기초 회화: 화, 목 13:00
6단계 각반 35명 선착순
문의: 새빛학교, 476-3100(교대역)

제26기 대가대 차이나포럼 원우 모집

개강: 9.18(월) 19:00(현재 접수중)
장소: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감삼동)
내용: 석식, 명사특강, MT, 졸업여행 등
수업료: 100만원(6개월 과정)
문의: 원장 김영택, (010)9494-8169

Road Of Bible(청년 성경 기도모임)

일시: 9.24(일) 15:00~17:30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앓숨 분원
대상: 35세 미만 남녀청년
문의: (010)9286-2247

가톨릭신문사 크루즈 성지순례

기간: 11.23(목)~12.8(금) 15박 16일
장소: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경비: 내측 558만원, 발코니 588만원
문의: (02)2281-9070 / www.cttour.org

2018년 가톨릭상지대 신입생 수시 모집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수시1차: 9.11(월)~29(금)

문의: 교무입학처, (054)851-3021 / 3023
<http://ipsi.csj.ac.kr>

대가대병원 리모델링 오픈·새장비 도입

스텔라관의 화려한 변신
최신 심혈관촬영장비와 MRI장비 도입
최상의 의료환경에서
최고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대표전화: 1688-0077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7년 대상자 /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발견에 좋습니다.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재건축 후원자 모집

교회를 위한 저희의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재건축을 위해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청합니다.
후원: 대구은행 504-10-137072-9
문의: 대구가르멜수녀원, (010)3375-4408

우리아이 아플때!!
한영한마음아동병원
병원장/의학박사 손찬락(라파엘)
* 99병상 입원실 운영 * 성장클리닉 운영
* 편입 외래진료: 오전 9시 ~ 밤 11시까지
* 토·일·공휴일: 오전 9시 ~ 밤 9시까지
대표전화 053)260-7777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신랑각시 결혼
전문직 · 초혼 · 재혼 · 만혼
의사, 약사, 교사 환영
이 원 교(요안나) | 21년 경력
(053)471-0707 · 476-1400
<http://www.sk1004.co.kr>
남구 봉곡동 영대병원 사거리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이 연 재(에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장보고원내과
원장! 내과전문의 조 재 현 (세례자요한)
위·대장내시경 / 건강검진
당뇨병·고혈압 및 내과질환
Tel. 053 791 7585
지하철 2호선 신매역 경신방향 5번 출구
신한은행 사지점 건물 3층 (남구별대로 3218)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대구정신병원
원장 신홍식(루가) 신부
T. (053)630-3000~1
지역사회 최초
보건복지부 "정신의료기관 인증" 획득

보건복지부 인증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말기암 통증 및 증상 조절
재능 및 기타봉사자 상시 모집
사랑나무의원 원장 전 은 수(가브리엘)
대구시 수성구 화랑로 112-1 (동구시장 맞은편)
24시간 상담 · 입원 (053)217-9500

다비드제통외과
비수술적 척추,관절,신경,인대 치료 전문
물리치료를 잘 낫지 않는 난치성 통증 전문
원장 권영득 (다윗)
Tel : 053)351-1704
칠곡 동아백화점 사거리
지하철 3호선 칠곡운암역에서 도보 10분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척추·어깨·무릎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송현역 2번 출구

행사 | 모임

2017년 대구대교구 소공동체의 날

일시: 10.14(토) 10:00
장소: 주교좌 범어대성당 드망즈홀
대상: 본당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마감: 10.8(일) / 참가비: 1인 5천원
문의: 교구 사목국 복음화담당, 250-3056

파티마 국제 순례 성모상 순회

기간: 10.1(일)~3(화)
장소: 진량성당
환영미사: 10.1(일) 20:00
환송미사: 10.3(화) 15:00
신청: 진량성당, 856-7676

9월 함께 꿈 미사

일시: 9.20(수) 19:30, 삼덕성당
주제: 환경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과
한국의 생태문제
강사: 양기석 신부(수원교구 환경위원장)
주최: 대구정의평화위원회

전례꽃꽂이연구회 월례회

일시: 9.18(월) 11: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네이버: 대구대교구 전례꽃꽂이연구회

가톨릭 미용인회 빛모임

일시: 9.25(월) 20:00
장소: 교구 가정사목담당(대건관)
대상: 가톨릭신자인 모든 미용인
문의: (010)6560-3086

교육 | 모집

제3차 대구약혼자 주말

기간: 10.13(금)~15(일), 베네딕도수녀원
영성관 / 문의: 교구 청년국, 422-6692
<http://www.daeguee.kr>

발달장애인 이해 교육강좌

기간: 10.12~12.7 매주 목(9주)
장소: 성토마스성당 2층 가톨릭문화관
내용: 발달장애의 이해, 성, 도전적
행동과 대처방법, 자립 등
문의: 476-6214 / (010)2802-5919

성경과 심리 집단 상담(10회기)

개강: 9.19(화) A: 15:00, B: 19:00
장소: 압량성당 소람상담실(2시간)
지도: 김종섭(토마스) 신부
신청: 소람상담소, 250-3100

오르간 성악 지휘 전공반 모집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9월 지성인을 위한 토요 신앙 특강

일시: 9.23(토) 10:00~12:00
장소: 대구가톨릭대 신학대학(남산동)
주제: 순교할 이들과 살아 보았나요?
강사: 김정숙(소화데레사) 교수
문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6

대구가톨릭평화방송 신앙특강

일시: 매주 금 10:00~11:15
장소: 1대리구청 강당(계산성당 내)

강사: 9월_김정숙 교수

문의: 대구가톨릭평화방송, 251-2630

가톨릭문화관 수강생 모집

바이올린: 화 18:30~19:30
성인생활영어 기초: 수 14:30~16:00
중급: 목 17:00~18:30
성가반주(미사 / 코드): 목 13:30~15:00
문의: 가톨릭문화관, 476-6211

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 무료상담

내용: 가정폭력, 부부갈등, 가족(자녀)
문제 등 / 방법: 전화 및 내방상담
문의: 253-1405~6
<http://www.with1401.or.kr>

54차 선교대학 개강(선교의 왕도_감동)

일시: 10.21(토) 10:30~16:30
장소: 계산문화관 / 지도: 이판석 신부
신청비 무료, 중식 제공
주관: (사)가두선교단, 781-6100

채용 | 안내

성가요양원 영양보호사 채용

위치: 칠곡군 동명면(동명성당 부근)
통근차량 운행(대구 칠곡)
문의: (054)976-8122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최상아(소피아)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코리아알트만
결혼평화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티리아)
대구은행 1번 출구
국민은행 ● 코리아
알트만 (4F)
대구은행 본점
지하철 2호선 대구은행역 2번 출구
국민은행 옆 삼성 인터리어 빌딩 건물 4층
TEL 743-4488 FAX 744-1594

5인의 분야별 전문의
검진부터 맞춤 진료까지
5속안심내과
지하철 1호선 각산역 2번 출구
053)965-6633

일월, 한솔, 한일매트
게르마늄 온수매트
소금좌욕기 전자제품
(주)매일프라자
김홍은(요셉) T.053)604-3300
대구 북구 유동단지로 45 전자관 1층 239호

박익현 **구심내과** 의원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초음파
지하철2호선 경대병원역 3번출구
원장 박 의 현(안드레아)
☎053)252-1785

www.theopen-daegu.co.kr **관철** **출처** **하라!**
더열린병원
THE OPEN HOSPITAL
관철 내시경·인공관절 중점병원
병원장 | 정형외과 전문의 **박진욱** **루카**
보건복지부 지정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병원
T.555-5520
죽전네거리
서남시장 맞은편

GAREM 가람소방방재(주)
• 소방시설점검(적용기능점검 · 종합정밀점검)
• 소방시설 전문공사
• 소방안전관리 대행
• 소방관련 기술교육
대표이사(소방시설관리사) **김진석(스테파노)**
대표전화 **053)600-8485**
대구시 달서구 달서대로 559 이연비노보스타워 B108호

노루페인트
페인트매납품, 건축내외부도장공사, 예복시, 방수공사,
컴퓨터조색, 전환경인테리어(현존, 듀렉스 수입페인트)
☎ **583-7391, 010-3507-0744**
대구 달서구 이곡동 1000-258 (2호선 성서공단역~계명대역사이)
노루페인트인크사 이명와(말림보) 이명와(소피아)

SM 수맥홍침대
창업 26주년 세일 행사!
공장직판, 거실소파
☎1588-5335